

### 주인공 되면 선 자리가 참되다



‘물따라 흐르는 꽃을 본다’ 서용스님 글

“참사람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나눌 수 없는 자기이다. 그렇듯 한 정도 없고 형상도 없고 자기부정을 자유로 하는 것이므로 무(無)라고 한다. 무에서 무한의 능동적인 적극성이 나오므로 곧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곳에 서든지 주인공이 되면 있는 곳은 진실하다.”

참사람 운동을 펼치고 있는 서용(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스님의 선 이야기와 삶을 글과 사진으로 엮은 <물따라 흐르는 꽃을 본다>(글 서용스님, 사진 박보하, 다른 세상)가 나왔다. 이 책의 특징은 선(禪)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삶에 대한 진리를 화두처럼 던져진 서용 스님의 선문답과 행을 통해 선을 가슴으로 느끼게 해준다는 것이다. 알듯하면서도 이해가 안되는 선어를 화두로 들고 고요히 생각하면 우리 생활 속에 먹고 입고 지는 행위들, 그것이 바로 선의 자리임을 일깨워준다. 값 9천원. 김중근 기자

### 불교가 제안하는 성공의 길

‘반야심경에서 찾아낸...’ 황태호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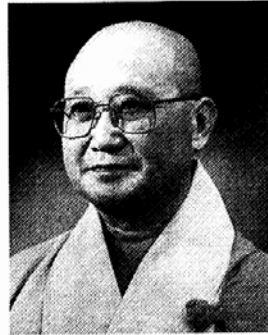
부처님 가르침의 알맹이를 담고 있는 <반야심경>을 통하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실천할 수 있는 성공비법을 담은 <반야심경에서 찾아낸 108가지 성공비법>(전심)이 나왔다. 지은이는 ‘감성지능 EQ’를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한 황태호(연세대 강사) 씨, 그는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를 주제로 이 책에서 두 가지 비법을 내놓는다.

그 첫째는 견경(見經·눈으로 보는 것), 독경(讀經·입으로 소리내어 읽는 것), 사경(寫經·손으로 베껴 쓰는 것), 묵독경(默讀經·소리내지 않고 읽는 것), 문경(聞經·귀로 듣는 것) 등 <반야심경> 수련 5개 비결이다. 둘째는 100일간의 기간을 정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이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 책은 108가지의 예피소드를 중심으로 지은이의 경험과 <반야심경> 수련 5대 비법을 직접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의 실례를 들어 설명한다. 값 9천원. 김중근 기자

## 서양인 정신 뒤흔든 선문답

‘은 세상은 한 송이 꽃’ 무심 스님 옮김



송산 스님

‘나는 누구인가.’ ‘오직 모를 뿐.’

송산 스님(화계사 조실)의 이 화두는 우리나라보다 이방인 불자들에게 더 많이 알려져 있다. 지난 60년대부터 송산 스님은 이 화두를 글자로 우리나라 선 불교를 세계에 알렸다. 지금까지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해외에 건립된 선원과 사찰은 약 32개국 130여 곳(신도 5만여 명).

송산 스님 선법문 진수

365공안 통해 진리 눈뜸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문답편> <벽암록> 등 불교의 공안뿐만 아니라 도덕경에 나오는 도교사상, 성경에 나오는 기독교 사상 등을 망라해 송산 스님의 독특한 방식으로 체화된 일종의 ‘송산 공안집’이라는 점이다. 한암·만공·고봉·진제 스님 등 우리나라 선승들의 대표적 공안들이 주종을 이루지만 새롭게 창안된 서양식 공안도 있다. ‘결어가는 세 남자’의 경우가 그중 하나다.

스님은 먼저 “세 남자가 걷는다. 첫째 남자는 칼 소리를 내고, 둘째 남자는 손을 흔들고, 셋째 남자는 손수건을 집어 올렸다”는 이야기를 꺼낸다.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에 있었다면 무엇이 올바른 행동인가, 그들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 “상황은 어떤 것인가”라는 3-4개의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합법법에 대해 개인하지 못한 사람을 경책하는 말을 외친다. “행동은 모두 다르지만 상황은 똑같다.”

여기에 실린 공안들은 모두 스님이 제자와 마주앉아 공부를 점검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독자들도 제자의 입장이 된다면 몰론이다.

하지만 송산 스님은 들머리에서 문자에 집착하지 말라고 강조한다. 스님은 “공안 이야기에 집착하거나 읽는 이의 견해에 매달린다면 그 공안의 참뜻을 깨닫지 못한다. 읽는 이의 견해나 조건, 상황을 모두 놓아 버려야 한다. 그러면 어떤 공안에 대해서도 저절로 정답이 나온다”며 지혜(예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전통적인 화두에서부터 송산 스님이 직접 내린 화두 365개를 담은 이 책은, 365일 하루 한편씩 읽으면서 그 속에 숨은 뜻을 파악하고 교훈을 얻을 수 있게 했다. 전 세계에 사원과 선원을 개설, 종교의 장벽을 뛰어넘는 보편적 진리를 제시해온 송산 스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365일 공안. 그 핵심을 찌르는 질문과 명상(靜想) 공안에 나타나는 일문일답에 비평을 하거나 동감의 뜻을 밝힌 것은 우리가 일상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루하루 마음을 닦아 나가야 하는지, 존재와 삶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 준다

특히 이 책은 송산 스님의 여러 책 가운데 스님이 직접 실린 선문답을 집약한 결정판이란 점에서 자료적 가치도 높다. 송산 스님의 제자인 무심(화계사 국제선원장) 스님이 우리말로 옮겼다. 값 1만2천원.

김중근 기자(gamja@buddhopia.com)

### 새로나온 책

▲나뭇가지가 바람을 따르듯이(고산 스님 지음, 들녘) =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후학양성과 포교에 정진하고 있는 고산 스님 법문집. 올바른 수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선이란 무엇인가... 불교에 대해 관심 있는 불자라면 한번쯤 읽어봤을만한 의문이다. 이 책은 불교, 부처님, 수행, 선 등 불교의 큰 뼈대를 하나하나 짚고 있다. 또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설명해 준다. 값 8천원.

▲지장경 강의(무비 엮음, 불광) = 부처님도 면하지 못하는 업을 녹일 만큼의 큰 원력을 갖고 있다는 지장 보살. 강인한 원력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험한 삶을 살아가라는 지장 보살의 메시지가 담긴 <지장경>의 참뜻을 해설한 책. (화엄경) <금강경> 등 여러 경전을 번역한 무비 스님의 명쾌한 해석이 돋보인다. 값 9천5백원.

▲왜 사는가 왜 죽는가(김해석 지음, 해누리) = 시인 김해석 씨가 지혜롭고 건강한 삶을 제시한 인생 지침서. 지은이는 다카하시 신지의 영혼이론을 통해서 인간의 탄생과 죽음에 관한 의문, 마음의 실상, 마음과 육체, 마음과 우주와의 관계, 건강하게 사는 방법 등 우리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질문에 대해 답한다. 값 1만2천원.

▲학교 너는 아직 내 사랑인가(윤지형 지음, 삼진기획) = 교단에 선지 올해로 12년째, 복직하지 8년째 되는 한 중견 교사가 우리나라의 교사는 누구이며 교사인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화두를 붙잡고 쓴 교육현장 일지. 그는 고교생을 상대하는 관대로, 교육부와 교육청 그리고 교장 선생으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평교사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성찰과 과정을 교단일기 형식으로 엮었다. 값 8천원.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에크하르트 톨레 지음, 노혜숙·유영일 옮김) = 마음으로 일으키는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의 충만함을 만끽할 수 있게 안내해 주는 영혼을 위한 지침서. 지은이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물 때 우리 삶이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다고 말한다. 세미나와 강연회 그리고 개인상담을 통해 나온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구성된 이 책은, 미래의 일이 아닌 지금 여기에서 창조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해 일관된 주장을 한다. 값 8천8백원.

### ◆금주의 베스트북서 10

책방 예시야원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선의 나침반	현 각	열림원
2	선재스님의 사찰음식	선 재	다인하우스
3	라마나 마하트르시 저작 전집	대 성	탐구사
4	금강경 강의	해 거	부스텍출판
5	도올에게 던지는 사자후	서 병후	화두
6	물따라 흐르는 꽃을 본다	서 용	다른세상
7	봄여름 가을 겨울	법 정	이레
8	절을 기차게 잡는 법	정 건	맛의마음
9	은 세상은 한 송이 꽃	무 심	현암사
10	방편개시	허 운	예시야원

도서 안내: (02) 737-0695

### 초심자를 위한 기초교리집

‘불교를 알고 싶어요’ 돈관 지음



“출가하기 전 불교 교리를 기본부터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어 책을 구하려 다녔지만 마땅한 책이 없었다.”

신간 <불교를 알고 싶어요> (우리는 한 스님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 없는 불교교리서 부족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출간된 책이다. 지은이는 돈관(대구 환성사 주지) 스님. 이 책은 BBS 대구불교방송의 신행 상담 프로그램 ‘열린 불교, 지혜의 샘’을 진행하면서 청취자들로부터 질문받은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다. 책의 내용은 초심자들의 가장 궁금한 사찰예절 등의 불교의식과 문화 그리고 상식에서부터 기초교리, 경전 이야기, 불·보살 이야기, 기도·수행이야기, 신행이야기 등이 망라돼 있다. 값 1만원. 김중근 기자

### 도올의 불교이해 바로보기

‘도올에게 던지는 사자후’ 서병후 지음



도올 김용옥의 불교철학을 다룬 <화두, 해능과 세익스피어> <금강경연해> <나는 불교를 이렇게 본다> 등 세 권의 저서가 중국과 영국 학자의 글을 베껴드는 의혹이 제기됐다.

불자로 언론·방송인으로 다양한 경력을 가진 서병후 씨가 쓴 <도올에게 던지는 사자후> (화두는 이 세 권의 저서를 바탕으로 김씨의 불교관을 비판한 책이다.

서 씨는 “불교에 대한 깊은 성찰의 과정 없이, 김용옥이라는 한 개별적 인간의 잣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저지르는 망을 우리 사회의 지성이 용납

해서는 안 된다”고 출간계기를 밝히고 있다.

지은이는 첫 장에서 김씨의 저서 <화두, 해능과 세익스피어> <금강경연해>가 중국학자 존 우의 <선학의 황금시대> (The Golden Age of Zen)와 영국의 동양학자 R. H. 블리드의 <선과 영문학> (Zen in English Literature)를 표절했다며 일일이 원문과 대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그런데도 두 학자의 이름을 김씨의 책 ‘참교문헌’ ‘인용각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준엄하게 ‘학문의 정직성’을 묻고 있다. 여기서 나와

가 지은이는 김씨의 불교관이 밤새워 참고서 서적을 뒤지는 수험준비식 버락공부를 통해 얻어진 것이라며, 불이해와 무지에 가까운 그의 불교이해가 불교를 어떻게 ‘왜곡’ 시키고 있는지 조목조목 밝히고 있다.

하지만 도올의 표절과 왜곡을 증명하기 위한 원문과 ‘비교’가, 몇몇 부분에선 위태롭게까지 보인다. 학술적 논쟁이 아닌 텍스트 위주 비판이 지니는 한계 때문이다. 값 9천5백원.

권형진 기자(jinny@buddhopia.com)

성하출판 영업부 (02)2273-4452

기(氣) 치료 전문가 초능력자 지선 스님의

## 침을 수 없는 고통과 당신의 운명을 깨치는 소리



“살아있는 에너지, 우리 몸엔 기가 있다”

21세기, 과학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현대의학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무수히 많다.

과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새롭게 대두되는 ‘4차원의 정신세계 기(氣)’, 질병과 고통 등의 갖가지 인생문제의 해답을 기 전문가 지선 스님에게서 얻는다.

‘좋은 기’를 받느냐 ‘나쁜 기’를 받느냐에 따라 무병장수 할 수도 단명명사 할 수도 있다. 좋은 기를 얻는 방법만 터득하면 누구나 다 행복해 질 수 있다.

“인간의 운명은 기에 따라 바뀐다”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이다’, ‘노력과 성공은 정비례한다’, ‘자신의 노력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는 등의 좋은 글이 많지만 이것은 인간의 상식적인 선에서의 말임이고, 4차원의 정신세계에서 볼 때에는 전혀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원자는 이를 우선은 ‘기’의 영향으로 인간 삶의 행·불행, 인간사의 기행과 슬픔이 교차한다고 본다. 쉽게 말하면 모든 즐거움과 슬픔, 기행과 고통, 무병장수와 단명명사 등 인간사의 행복과 불행의 원인은 이 ‘좋은 기’와 ‘나쁜 기’의 영향으로 그것에 조건이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

원자는 자신이 전개하는 논리와 현실적 사례에 대한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신뢰하지만 하연 자신의 환경을 좋은 기로 변형시킴으로써 기의 작용으로 행복한 인생의 축진이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다.

현실의 우환과 불행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자신과 가족들이 밝은 미래의 인생을 보장받고 싶은 사람, 미래에 큰 삶을 영위하고 싶은 사람, 현재 불행속에 있는 남녀들이 판자를 바꿀 수 있는 최정생 원년 열두 달 편안하게 살게 하는 지혜의 그릇이 바로 이 책이다.

- 지선 스님 지음 (대구 팔공산 저씨사 주지 스님)
- 신국판 · 276페이지 정가 9,000원
- 책속 부록 · 기적을 이끄는 지선스님의 신비의 담자도

## 기(氣)이는 만큼 행복하다

지선 스님의 기(氣) 강의 전국 강타

- 한국정신과학회 세미나 (2001년 3월 28일 대전 KAIST강당)
- MBC-TV 아카데미 출연 (2001년 5월 4일 인동MBC-TV 방송국)

